

전주시 한옥마을 관광지 조성 '탄력'

142개 사업 5253억원 확보 글로벌 프로젝트 탄력

전주시가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전통문화 분야 신규사업 예산을 대폭 확보함으로써 민선6기 들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를 조성하는 '글로벌 3.0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기존 성장동력인 탄소섬유 외에 새로운 먹거리인 ICT(정보통신기술), 농생명 분야 신규사업 예산까지 대거 확보함에 따라 미래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국회가 2017년도 국가 예산을 확정할 가운데 전주시 예산의 경우 142개 사업에서 5,253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4500억원 보다 753억원(16%)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성과는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와 계속사업 예산의 10% 의무 삭감 원칙 고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광수·정동원·정동영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등 전북출신 국회의원간 공조체제 강화로 이뤄낸 결과다.

특히 사람과 생태, 문화로 대표되는 전주시의 핵심가치를 구현할 밑거름이 될 의미 있는 핵심사업인 생태동물원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과 세계무형유산 포럼과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전북 특화형 창업보육센터 건



25t 탱크로리 전도 5일 오전 11시55분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교차로에서 과산화수소를 실은 25t 탱크로리가 전북도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 수습에 나서고 있다.

립, 전주 업사이클센터 등 주요 신규사업이 역대 최대인 24건에 총 342억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들 신규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총 25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어서 전주시의 지속 성장 발전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주시갑)은 "전통한지 생산시설구축과 전주 업사이클 센터 등 급변 반영된 신규사업을 잘 추진해서 전주의 미래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원 의원(새누리당, 전주시을)도

"2017년 예산확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2018년 예산 확보를 위해 올 연말부터 착실히 준비해, 희망찬 미래가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주시병)은 "전북의 정치력 복원과 전주시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 전주시 국가예산 확보는 전주시와 예정위 계승조정소위에 참여한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전주출신 의원들이 이뤄낸 합작품이다. 앞으로도 전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드는 일과 탄소와 ICT산업 등 산업을 키워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 등은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전주의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전북도,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와 전주의 미래를 바꿀 신규사업 발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서학광장 상징조형물 설치

마을의 지명 유래를 모티브로 한 학 모양

전주시가 전주천을 끼고 한옥마을과 맞닿아 있는 서학동에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동의 상징물인 서학광장 상징조형물을 설치했다.

국립무형유산원과 흑석골, 남고사, 서노송예술촌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서학동에 상징조형물이 설치되면서, 연간 천만명에 달하는 한옥마을 관광객들의 동선도 전주천을 넘어 서학동까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5일 서서학동 서학광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지역구 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학광장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

'빛나는 꿈 서학에 날다'를 주제로 설치된 서학광장 상징조형물은 서학동에서 추진된 도시재생 결과물이자 서학동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성과를, 서학동 마을의 지명 유래를 모티브로 한 학 모양의 조형물로 설치됐다.

상징조형물은 전주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전주 땅 모양의 기단석 위에 높이 3.5m, 너비 2.4m 규모로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알과 인락한 보금자리를 뜻하는 동지가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조성됐다.

특히 이 조형물에는 풍요롭고 청정한 보금자리인 전주라는 삶의 터전 위에 알과 동지를 틀고 창공을

향해 한껏 날개를 펼쳐 힘차고 우아하게 비상하는 학의 모습을 표현해 전주시 곳곳에 고유한 역사문화와 아름다운 예술의 향기가 온전히 깃들기를 염원하고, 서학동 모든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시는 서학광장 상징조형물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한옥마을을 관광객들의 관광 동선을 전주천 넘어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내년 8월까지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연결하는 길이 86m, 폭 4m의 전주천 인도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33년만에 전북경찰청 출신 경무관 승진

강황수 총경(경찰간부 37기·전북청 수사과장)이 무려 33년만에 전북경찰청 출신으로 경무관에 승진했다.



강황수 경무관



조용식 경무관

평가를 받았다. 강황수 과장은 승진으로 인해 전주 완산경찰서장으로 임명된다. 이에 따라 장하연 완산경찰서장은 전

5일 경찰청 경무관급 승진·정보 인사를 단행했다.

전북경찰은 1983년 치안본부 전북경찰국 시절 송주원씨가 경무관으로 발탁된 이래 단 한 차례도 경무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에서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경무관을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북경찰과 도민들의 바람을 이뤄준 강황수 수사과장은 전북청에서만 완주서장, 정보과장, 익산서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4대범죄 검거 도내1위 달성, 112총력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근무시스템 구축과 같은 공로로 인해 녹조근정 훈장을 받는 등 경찰 내·외부로부터 좋은

북청 제1부장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고, 전북청 제1부장이던 진교훈 경무관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한편 이번 인사에는 전북출신인 조용식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경사특채·김제) 역시 경무관으로 승진해 기쁨을 더했다. 조용식 과장은 시 전북청에서 경무과장과 김제서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조용식 과장은 승진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경찰 내부에 따르면 강황수 과장은 지역안배를, 조용식 과장은 직무별 안배를 우선시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원칙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전북경찰 지휘부 회의 개최

전북지방경찰청이 5일 경찰청 대회 의실에서 조희현 경찰청장의 주재로 지방청 부장 및 과장과 도내 15개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경찰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제29대 전북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조희현 청장의 지휘철학을 지휘부와 공유하고, 최근 어수선한 사회분위기가 이어짐에 따라, 민생치안에 공백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

튼튼한 현장치안을 확보하여 도민을

안전하게 하는데 역량을 모으고, 특히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과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정성스런 안전의 방패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부소통과 더불어 지역치안의 핵심인 '경찰-지자체-의회'와의 협업을 위해 치안협의회·치안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민, 지자체, 지방의회 등 외부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김민근 기자

전주월드컵골프장 야간 시간대 티업시간 조정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에서는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전주월드컵골프장 새벽 및 야간 시간대 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티업시간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티업시간을 기존 04:41~19:30에서 06:00~19:00로 팀 예약시간을 고려해 탄력운영에 들어

간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김신 이사장은 "동절기를 맞아 월드컵골프장을 찾는 시민과 이용객들의 안전한 라운딩과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란다"며 "저희 골프장은 도심 속 골프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